

# 월간 내일

December 2025  
Vol.607



연극배우 최민호



# CONTENTS

## 평범함을 바꾸는 일탈



<내>일의 감각이 필요한 시대,  
나의 일을 위해  
필요한 감각에 관한 이야기

08

다짜고짜 설문

당신의 머릿속엔 어떤 발상이 숨겨져 있을까?

10

일잘러를 만나다

현장이 곧 교실, 청년과 기업이 함께 만드는 미래  
(주)케이씨씨모빌리티

16

내일 인터뷰

아이돌 그 이상, 연극무대에서 다시 피어나다  
연극배우 최민호



내일을 살아가기 위해 알아야 할  
고용노동 관련 정책과  
활기 넘치는 현장의 소식

20

MOEL 아카이브

2026년 최저임금 1만 320원 확정

24

굿 파트너

사람-일-삶을 연결하는 번호, 1350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28

체인지업! MOEL

권리 밖 노동자 목소리, 노동정책의 밑그림이 된다

32

함께 하는 MOEL

다시, 청년의 심장이 뛰다  
인천테크노파크 청년일자리센터

36

내일 로그

전문적인 의료 AI로 인류를 더욱 건강하게  
의료 AI 개발자

38

어땠을까

열아홉의 너, 아주 멋지게 해내고 있구나



일하는 사람들의 워라벨을 위한  
다양한 문화정보

40

MOEL 뉴스

44

아보하 스포트

오색 찬란한 가을처럼  
합천

48

내일 톨

• 실패가 쌓이면 취향이 된다  
• 창의력, 본능을 따르는 건 언제?

50

취향시대

온전히 누리는 사계절의 매력

52

직장인 어휘 캘린더

흔들려도 괜찮아! 다시 일어서면 그뿐

54

내일 모의고사

December 2025 Vol. 607

고용노동부 소식지 「월간 내일」

발행처 고용노동부 발행인 고용노동부 장관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전화 044-202-7751 홈페이지 www.moel.go.kr 웹진 www.labor21.kr 기획·제작 경성문화사

고용노동부 소식지 「월간 내일」의 저작권은 고용노동부에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이 책에 실린 모든 글과 그림, 사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월간 내일  
웹진 바로가기



## 조용히 돌아나는 가능성

창의력은 익숙한 세계의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미세한 균열 같습니다.  
하지만 그 파동은 멀리 번져나갑니다.  
작은 발상 하나가 회의의 흐름을 바꾸는 순간,  
낯은 절차를 단순한 아이디어로 정리하는 손길,  
평범한 질문으로 새로운 시야를 넓히는 태도에서  
그 영향력은 시작됩니다.

이 파동은 주변의 움직임을 서서히 변화시킵니다.  
사용자 불편을 메모한 직원의 기록이 제품 기능의  
전환점이 되기도 하고, 사소한 관찰에서 출발한 대안이  
조직 전체의 기준을 다시 세우기도 합니다.  
작은 흔들림이 오히려 구조를 견고하게 재편하는 것입니다.







창의력의 파동은 사람을 연결하고  
흐름을 만든다는 점에서 더욱 힘을 가집니다.  
낮선 생각을 부드럽게 제안하는 누군가의 용기,  
팀의 침묵을 한 문장으로 깨우는 발언,  
실패한 시도를 새로운 실험으로 이어가는 지속성이  
주변의 참여를 끌어냅니다.

결국 한 사람의 창의력은 개인을 넘어  
공동의 가능성을 일깨웁니다.  
작은 진동이 겹치며 큰 물결로 확장되고,  
그 물결은 내일의 방향을 조용히 수정합니다.  
우리는 그 여백을 바라보며,  
또 다른 파동을 준비하게 됩니다.

## 당신의 머릿속엔 어떤 발상이 숨겨져 있을까?

### 창의력 셀프 테스트

늘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고 있진 않나요? 이 테스트는 당신 안의 '생각의 틀'을 살짝 흔들어,  
숨은 창의력을 깨워보는 시간입니다.

글 편집실

#### Q1.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 나는

- A.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먼저 생각한다. 1점  
B. 일단 떠오르는 대로 적어본다. 2점

#### Q2. 문제를 해결할 때

- A. 검증된 방법을 찾는다. 1점  
B. 새로운 접근을 시도한다. 2점

#### Q3. 일상 속에서 '이건 왜 이렇게 하지?'라는 생각을

- A. 거의 하지 않는다. 1점  
B. 자주 하며 다른 방식을 상상한다. 2점

#### Q4. 실패했을 때 나는

- A. 의욕이 떨어져 잠시 멈춘다. 1점  
B. 이유를 분석하고 다시 시도한다. 2점

#### Q5. 낯선 환경에 있을 때

- A. 조심스럽게 익숙해지려 한다. 1점  
B. 새로운 자극에 흥미를 느낀다. 2점



### 결과 보기

#### 5~6점: 안정형 사고자

현실적이고 계획적인 사고가  
강점이에요. 익숙한 틀을 잠시  
내려놓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 7~8점: 균형형 탐색자

상상력과 현실감각이 조화로운  
타입이에요. 생각을 구체화해  
실행으로 옮겨보세요.

#### 9~10점: 자유형 창작자

아이디어가 넘치는 타입이에요.  
다만 실행력과 정리가 창의력을  
완성시킵니다.

## 나는 최고의 아이디어 왕이로소이다!

### 하루 하나씩 아이디어 실천하는 문화 만들기

업무 프로세스에서 반복되  
던 소통 병목을 해결하기  
위해 저는 '미니 실험 주간'  
을 제안했습니다. 팀원들  
이 하루에 하나씩 개선 아  
이디어를 내고, 그중 바로  
실행 가능한 것을 빠르게  
시범 적용해 본 결과 문제  
원인이 분명해지고 개선책  
도 금방 나왔습니다. 이후  
의사결정이 빨라지고 불필  
요한 회의가 줄었으며, 팀  
원들의 참여와 주도성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작은  
실패를 빠르게 배우는 문  
화가 자리 잡으면서 리스  
크 없이 혁신을 시도할 수  
있었고, 최종적으로 처리  
시간 단축과 고객 만족도  
향상으로 이어졌습니다.

서울시 양천구  
고광일 씨

### 작지만 영향력을 가진 아이디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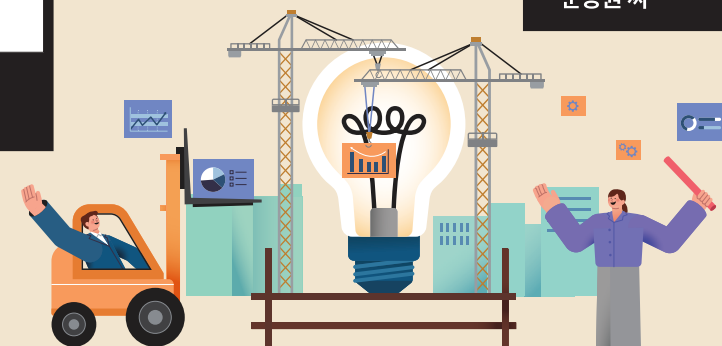
제가 맡았던 업무 중 하나는  
창고 재고를 관리하는 일이  
었는데, 엑셀 시트만으로는  
현장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  
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  
고 상태를 색깔로 구분해 선  
반에 직접 표시하는 '재고 시  
각화-컬러 코딩' 방식을 도  
입했습니다. 시각화 전략 덕  
분에 누구나 재고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었고, 재고 누  
락이나 초과 주문 같은 오류  
도 크게 줄었습니다. 또 신  
규 인력 교육 시간이 단축되  
었습니다.

인천시 서구  
고상한 씨

### 작은 목소리도 시스템으로 연결될 수 있다

초등학교 때 저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급  
식 피드백 스티커' 아이디  
어를 제안했습니다. 친구  
들이 스티커의 이모티콘을  
선택하면 급식실에서 메  
뉴를 조정하는 방식이었  
고, 시범 운영 후 쓰레기가  
30% 줄었습니다. 학교 전  
체로 확대되면서 '인기 메  
뉴 투표'도 생겼고, 저는 급  
식 메뉴 기획단 대표로 새  
로운 메뉴를 제안하게 됐  
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작  
은 의견도 시스템을 통해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부산시 동구  
문승원 씨



다음 호 설문은 [월간 내일] 독자 만족도 조사입니다. [월간 내일]에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  
사드립니다. 더 가치 있고, 유익한 매거진을 만들기 위해 준비한 이번 조사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참여해 주신 분들께  
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현장이 곧 교실, 청년과 기업이 함께 만드는 미래

## 일학습병행 우수사례 (주)케이씨씨모빌리티

2025년 일학습병행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학습기업·기업현장교사 부문 동시 수상의 영예를 안은  
케이씨씨모빌리티는 자동차 정비 현장에서  
10년째 청년을 키워왔다. 기술보다 사람을, 성과보다  
성장을 먼저 생각하는 이곳에서 청년들은 동료가 되어간다.  
글 차유미 사진 오충근



### 일급제계의 새로운 기틀 마련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130번지. 케이씨씨모빌리티 성동서비스센터는 지프, 푸조 등 수입차 브랜드를 취급하는 자동차 정비업체다. 2016년부터 일학습병행제도를 운영해온 이 회사는 올해로 10년째를 맞았다. 그간 42명의 청년이 이곳을 거쳐 갔고, 그중 5명은 지금도 이 회사에서 정비사로 일하고 있다. 케이씨씨모빌리티는 케이씨씨오토그룹의 계열사다. 전제 계열사의 일학습병행 누적 훈련인원은 188명에 달한다. 자동차 정비업은 도제식 현장훈련이 필수적인 분야다. 브랜드마다 차량 구조가 다르고, 같은 고장이라도 접근 방식이 달라진다. 숙련된 기술자의 손놀림과 판단력은 책으로 배울 수 없는 영역이다. 기업현장교사로 이번에 장려상을 받은 박성관 부장은 회사가 일학습병행제도를 시작한 배경을 설명했다.

“중요한 건 채용 문제였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며 함께 일하는 프로그램이 참 좋았어요.” 자동차 정비 분야는 구인난이 심각하다. 일학습병행제도는 이 문제에 대한 답이었다. 독일과 스위스의 듀얼러닝 모델을 한국 실정에 맞게 설계한 것이다. 기업이 청년을 먼저 채용한 뒤 현장경험(OJT)과 이론교육(Off-JT)을 병행하며 인재로 키우는 선취업 후학습 방식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13년 도입 이후 2만 개 이상의 기업과 17만 명 이상의 학습근로자가 참여했다.

케이씨씨모빌리티는 이 제도를 네 가지 유형으로 운영한다. 고등학생 대상 도제, 도제 이수 후 대학을 다니며 평일에 일하는 P-TECH, 입사 1년 미만 신규 입직자 대상 재직자 교육, 올해 처음 시행한 특화대학 과정까지. 이 모든 과정을 경험하며 노하우를 쌓아왔다.







### 실습생이 아닌 동료로

박성관 부장은 일학습병행의 핵심을 한 단어로 압축했다. 사람이다.

“기술은 어차피 배우는 과정이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됴됨이와 하려는 의지가 제일 중요하죠.”

그는 학생들을 실습생이 아닌 동료로 대한다. 안전은 가장 우선이다. 자동차 정비 현장은 위험 요소가 많다.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다치면 의미가 없습니다.” 박 부장의 말이다. 매일 아침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고, 위험한 작업은 반드시 재확인한다.

처음 들어온 학생들에게는 간단한 작업만 맡긴다. 공구 정리, 부품 확인, 세차 같은 기초 업무부터 시작한다. 옆에서 숙련된 작업자의 손을

림을 보고, 어떤 순서로 점검하는지 관찰한다.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직접 해보게 한다. 작업자는 바로 옆에서 도와주면서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준다.

교육 프로그램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본으로 한다. 여기에 회사 자체 매뉴얼과 현장 노하우를 더한다. 작업자마다 자기만의 스킬이 있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접근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결론은 같지만 어떻게 하면 편한지는 사람마다 달라요.” 학생들은 여러 정비사를 거치며 다양한 방법을 익힌다.

“인간으로, 동료로 다가가라고 얘기합니다. 그 래야 함께 일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박 부장의 철학은 실제로 효과가 있었다. 1대 1로 생활하며 관계를 쌓기 때문에 직원이 됐을

때도 외로움이나 이질감이 없다. 회사는 지금까지 이탈자가 거의 없었다. 개인 사고나 가정 사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면 중도 탈락자가 없다.

케이씨씨모빌리티는 자체 매뉴얼도 제작했다. 각 지점의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시스템도 구축했다. 성동센터에서 효과적이었던 교육 방식을 서초, 안양, 의정부 센터와 공유한다. 현장 실습, 피드백, 평가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학습 품질을 끌어올렸다. 기업현장교사 6명과 HRD 전담자 1명이 학생들의 성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 배움과 일, 두 바퀴로 달리는 청년들

올해 3월부터 특화대학 과정에 참여 중인 강수민 씨와 김준수 씨는 8개월째 이곳에서 배우고 있다. 손놀림도 제법 익숙해졌다.

강수민 씨는 학교 수업과 현장 실습의 차이를 명확히 느꼈다.

“학교에서는 기초적인 걸 주로 배웠는데, 여기 와서 활용하니까 오히려 이해가 더 잘됐어요.” 이론으로만 배웠을 때는 추상적으로 느껴졌던 개념들이 손으로 만지면서 구체화됐다.

김준수 씨는 현장 학습만의 장점을 강조했다. “교수님들이 주로 이론으로만 가르치시는데, 현장에서는 감이 있잖아요. 만지고 보면서 배우니까 확실히 다릅니다.”

학교에는 실습용 차량이 많지 않지만, 현장에서는 매일 다양한 차량이 들어온다. 같은 브랜드라도 연식과 모델에 따라 구조가 조금씩 다르다. 그걸 직접 보고 만지면서 배운다.

강수민 씨는 처음엔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웠다. 학교에서 본 샘플 차량과 실제 고객의 차량은 달랐기 때문이다. 지금은 차가 들어오면 어떤 순서로 점검해야 하는지 알게 됐고, 전체 정비 시

스템을 이해하게 됐다. 직접 현장에서 눈과 손으로 익힌 덕이다.

김준수 씨는 정비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다. “처음엔 정비에 딱히 관심이 없었는데, 하다 보니 적성에 맞는 것 같아요.” 손으로 무언가를 만지고 고치는 일이 재미있었다. 고장 난 차를 정상으로 돌려놓았을 때의 성취감도 컸다. 이제는 자격증도 따고, 기술도 더 배우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다. 두 학생은 일학습병행 프로그램을 적극 추천했다.

**1대 1 맞춤형 교육과 동료 관계 형성을 통해 청년의 조기 취업과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다.**







“학교에서 배우는 거랑 일을 해보는 거랑 차이가 엄청 커요. 한번 해보고 싶으면 이걸 통해 빠른 성장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강수민 씨의 말이다. 김준수 씨도 덧붙였다.

“대학만 다니면서 시간만 보내는 친구들에게 추천하고 싶어요. 현장에서 배운 경험은 나중에 꼭 도움이 됩니다.”

이들은 내년 2월 과정을 마친다. 11월과 12월에 평가를 받고, 회사는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채용 여부를 결정한다. 두 학생 모두 자격증 공부를 계속할 계획이다. 취업이 되든 안 되든, 이곳에서 배운 경험은 그들의 자산이 될 것이다.

#### 현장에서 찾은 답, 함께 만드는 미래

박성관 부장이 학생들과 헤어지는 시간이 늘 기대된다. 몇 년 전 이곳에서 배웠던 청년들이

**인성과 안전을 중시하며 학생을  
실습생이 아닌 동료로 대하는 철학으로,  
청년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연락한다. 박 부장은 일학습병행이 자기 회사만의 인재를 키우는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곳에서 배운 청년들이 다른 회사로 가더라도 괜찮다. 그들이 업계에서 잘 자리 잡고 성장한다면 그것만으로 의미가 있다.

학생들에게 그는 “자동차 업계에는 정비, 판금, 도장, 부품, 어드바이저 등 많은 직종이 있습니다. 성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여러 분야를 겪어 보면서 자기에게 맞는 길을 찾으세요.”라고 말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즐기는 것이다. “힘들어도 즐기는 사람을 못 이긴다.”는 게 그의 조언이다. 그리고 학습근로자와 함께 성장하는 문화를 계속 만들어가겠다는 것이 그의 다짐이다. 청년들과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

케이씨씨모빌리티는 앞으로도 일학습병행 교육과정을 확대할 계획이다. 스텔란티스 브랜드 하우스 전 지점으로 확대하고, NCS 기반 커리큘럼을 고도화할 예정이다. 현장교사 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학습근로자의 경력개발 체계를 정비해 지속 가능한 인재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겠다는 목표다.

단순히 기술자를 키우는 게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동료를 만드는 것. 그것이 케이씨씨모빌리티가 10년간 일학습병행을 운영하며 얻은 철학이다. 현장이 곧 교실이 되는 곳. 기업과 청년이 함께 만드는 미래가 여기 있다.





## 아이돌 그 이상, 연극무대에서 다시 피어나다

그룹 샤이니 멤버 민호가 아이돌 활동의 전환점에서  
연극 무대를 택하며 깊은 고민과 남다른 창의력을 선보이고 있다.  
가수와 배우의 경계를 허물며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는 최민호의 행보가 주목된다.

글 하경현 경향신문 기자 사진 SM엔터테인먼트

### 아이돌, 새로운 길을 모색하다

아이돌 스타들이 연기를 하는 모습은 이제 새로운 풍경은 아니다. 데뷔하고 보통 7년 정도 되는 첫 번째 계약 기간을 팀으로서 넘어간 후, 아이돌 가수들은 첫 번째 활동의 전환점을 맞이한다. 이 과정에서 팀으로 계속되느냐 마느냐의 첫 번째 갈림길이 생긴다.

그룹 샤이니의 멤버 민호로 유명한 최민호는 이 과정에서 연극을 택했다. 모르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연예계에 대해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그의 이 선택에 대해 무릎을 '탁'하고 칠지도 모른다. 그만큼 그의 선택은 창의적이었다. 단순히 영상에 비치는 연기라면 틀리면 수정하고, 안 되면 보완할 수 있다.

하지만 한 시간이면 한 시간, 두 시간이면 두 시간 무대 위에서 관객 위에 오롯이 자신을 맡겨야 하는 연극은 웬만한 용기와 열정 없이는 도전하기 쉽지 않다. 최민호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출연했던 연극 <고도를 기다리며를 기다리며> 땀 역으로 다시 무대에 섰다. 지난 11월 16일까지 다시 두 달의 기간, 연습을 합친다면

그보다 더 오랜 시간을 무대 위에 쏟아부었다.

“우선 무사히 작품을 마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뜨거운 여름부터 쌀쌀한 바람이 부는 지금까지, 정말 소중하고 잊지 못할 한 페이지를 멋지게 장식한 것 같습니다. 연극은 제가 예전부터 꿈꾸던 무대 중 하나였습니다. 가수 활동과 연기를 꾸준히 병행했었는데, 실제 연극을 볼 때면 ‘이런 느낌이 있겠구나, 이렇게 할 수 있겠구나, 언젠가 꼭 도전해보고 싶다’는 소망을 품었었죠.”

### 창의력의 원천, 무대

최민호에게 무대는 지금까지 자신이 꿈을 키워온 터전과 같았다. 단, <고도를 기다리며를 기다리며>가 그의 지금까지 모습과 다른 점은 샤이니로서 노래마다 차별화된 모습과 무대 매너를 보이던 가수에서, 정해진 대본을 상대 배역과 연구하고 관객들의 시야 안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모습으로 재창조해야 하는 배우로서의 모습이었다. 가수로서의 창의력 못지않은, 배우로서의 창의력이 필요했다.





“아무래도 무대 경험이 있었으니 도움이 된 건 확실합니다. 하지만 제 생각보다 연극을 이끌 어간다는 사실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부담되기도 했어요. 항상 같은 대본이지만 객석을 채워 주시는 관객분들이 날마다 달랐기에 매번 무대에 설 때마다 새로웠고 그 경험으로 배우는 게 많았습니다. 가수는 제 안의 모든 것을 뽐내려는 느낌이라면, 연극은 관객분들이 극을 통해 어떻게 하면 많은 걸 느끼실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작품의 메시지를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경험이었습니니다.”

같은 대본으로 무대에 서는 선배 연기자들을 보고 배워가며 때로는 함께 상의하며 꾸려갔던 작품이라 이번 연극에서도 최민호만의 창의력이 필요했다. 물론 아이돌 스타로서 연극에 출연한다는 발상 자체도 창의적이었지만, 최민호는 극 중 새를 표현하는 장면에서도 매번 다른 콘셉트

와 동작으로 표현하며 재미와 의미를 찾았다. “항상 어떤 연기를 하든, 어떤 무대에서든 저만의 것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하지 않는, 제가 할 수 있는 포인트들을 생각해내려고 매 순간 고민을 하는 편입니다. 다행히 많은 관객분들이 저의 노력을 좋게 봐주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 멈추지 않는 새로운 도전

2008년 그룹 샤이니로서의 데뷔, 그 풋풋함이 그대로이던 2010년 최민호는 KBS의 단막극 <드라마스페셜-피아니스트>를 통해 배우로 데뷔했다. 배우로만 쳐도 벌써 15년의 시간이다. 그는 그룹 샤이니의 멤버로서, 그리고 2021년부터 시작한 솔로 가수로서의 모습으로 또한 배우, 지금은 예능을 통해 친근한 모습을 보여

주는 것도 잊지 않았다.

“MBC <나 혼자 산다> 프로그램을 통해 운동을 열심히 하는 모습이 많이 공개됐습니다. 저는 운동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계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운동을 열심히 하는 이유는 항상 체력을 기르고 몸을 준비해 두어야 제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을 더 잘 보여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체력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왕성한 창의력과 이를 뒷받침하는 열정 그리고 그 준비가 되는 체력은, 때로는 그의 팬들이 그의 건강을 걱정하게 할 만큼 열정적으로 채워지고 있다. 최민호는 이 질문에 웃으며 “걱정해주시는 분들도 더러 있지만, 무리를 하지는 않습니다. 제 SNS를 보시면 바로 아실 수 있을 텐데요. 아주 행복하게, 일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운동을 즐기고 있습니다.”라고 답했다.

### 사랑하는 사람들과 건강한 몸과 정신

벌써 17년이 된 아티스트로서의 생활. 그는 늘 창의력이 필요한 일의 최전선에 서 있고 매일 매일 그 창의력을 분출하는 삶을 살고 있다. 체력적인 준비는 즐거운 운동을 통해서 하고 있지만, 영감의 원천 역시 중요하다. 최민호는 이 영감의 원천을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꼽는다.

“저를 응원해주시는 많은 분들, 팬분들에게서 힘을 얻었습니다. 그 힘으로 제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 새로운 걸 보여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계속해서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샤이니로서의 활동도 제게 큰 영감을 주는데요. 샤이니는 이제 저에게 어떤 의미가 아닌 ‘저 자신 그 자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샤이니는 저의 시작이고, 끝은 없습니다. 이는 앞으



연극 <고도를 기다리며를 기다리며>

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최민호의 행보는 단순히 ‘가수의 새로운 활동은 연기’라는 도식을 벗어난다. 스스로 주어진 무대가 아닌 더 큰 무대를 만들기 위해 연극을 택했고, 박근형과 김병철, 이상윤이라는 대선배들에게 그 호흡을 배워갔다. 그의 창의력은 최민호를 단순히 ‘가수’로만 구분 짓지 않는다. 그는 그의 안에서 뿜어나오는 영감을 때로는 노래로, 연기로 그리고 운동으로, 일상에서 보이는 자연스러운 웃음으로 승화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그의 열정 그리고 운동을 통한 건강한 몸이다.

“벌써 2025년 끝이 보입니다. 올 한 해 정말 고생 많으셨고, 나쁜 일보다 좋은 일만 기억하시며 <월간 내일> 독자 여러분도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저 최민호는 앞으로도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더 깊이 있는 이야기, 인터뷰 전체 내용은 웹진에서 만나보세요!



## 2026년 최저임금 1만 320원 확정

2026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0,320원으로 확정됐다.  
올해보다 290원(2.9%) 인상된 수준으로, 노사 합의로 결정된 것은 17년 만이다.  
이의신청 기간 동안 별다른 제기 없이 확정·고시되면서  
내년 1월 1일부터 전 사업장에 일괄 적용된다.

글 편집실 자료 고용노동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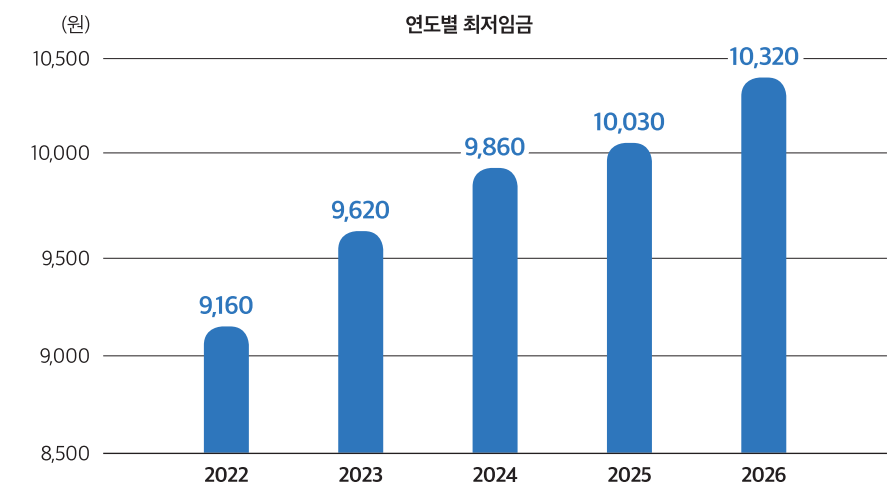


## 공익위원 중재로 합의 도출, 17년 만에 표결 없는 결정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7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당 10,32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2025년(10,030원)보다 290원(2.9%) 오른 금액으로, 월 환산액은 주 40시간 기준 2,156,880원이다. 이번 결정은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촉진기간 내에서 노사 양측이 각각 수정안을 제출하고 협의 끝에 도출된 것으로, 2008년 이후 처음으로 표결 없이 합의로 결정됐다. 일부 근로자위원이 퇴장했지만, 나머지 위원들이 끝까지 논의를 이어가며 타협점을 찾았다.

## 이의신청 없이 확정 고시, 전 업종 동일 적용

고용노동부는 7월 18일부터 28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했으며, 별다른 이의 제기 없이 8월 초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했다. 이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모든 업종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이번 인상으로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약 78만2천 명(영향률 4.5%),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약 290만4천 명(영향률 13.1%)으로 추정된다. 주요 대상은 서비스업, 단시간 근로자 등 저임금 근로자층이다. 정부는 “합의에 의한 결정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대화의 복원이라는 의미가 있다”며, 향후에도 합리적 임금 결정 구조와 노사정 협력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최저임금이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제도이다.

## 2026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2026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적용  
월 환산액 2,156,880원  
(주 40시간 기준, 유급 주휴\* 8시간 포함)

### \*주휴수당이란?

1주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일 동안 개근한 경우 주 1회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하는데, 이때 지급하는 수당이 주휴시간이다. 주 5일,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라도 소정근로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하루 8시간씩 근무 조건인 근로자의 경우 5일을 개근하면, 1일에 해당하는 8시간에 대한 임금을 주휴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

##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         |                                                         |
|---------|---------------------------------------------------------|
| 포함되는 금액 |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br>(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
| 제외되는 금액 | ·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br>· 소정근로 외의 임금(시간외수당 등)           |

## 최저임금 위반 사례 알아보기

### 시간급

시간급 10,300원을 받는 경우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2026년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보다 적기 때문에  
**최저임금법 위반임**

### 일급

1일 8시간 근로하고  
일급 82,000원을 받는 경우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10,250원(82,000원 ÷ 8시간)은  
2026년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보다  
적기 때문에 **최저임금법 위반임**

### 주급

1일 4시간, 1주(5일)간  
총 20시간 근로(개근)하고  
주급 244,800원을 받는 경우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10,200원(244,800원 ÷ 24시간)은  
2026년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보다  
적기 때문에 **최저임금법 위반임**  
\*24시간(1주 20시간 + 유급주휴 4시간)

### 월급

1주 40시간(주 5일, 1일 8시간)을  
근로하고 월급 2,131,800원을  
받는 경우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10,200원(2,131,800원 ÷ 209시간)은  
2026년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보다  
적기 때문에 **최저임금법 위반임**  
\*209시간((1주 40시간 + 유급주휴 8시간)  
× 365 ÷ 7) ÷ 12월



# 사람-일-삶을 연결하는 번호, 1350

누군가의 하루 뒤에는 늘 일과 삶이 얹힌 고민들이 생기기 마련이다.  
그 고민이 막막하게 느껴질 때 전화기 너머에서 조용히 손 내밀어 주는 곳,  
바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다. 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해답을 함께 찾아가며 수많은 사람의 '내일'을 돕고 있다.

글 김혜영 사진 김근호

## 고용노동부 대표번호 1350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이하 '센터')는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대표 상담 창구로, 고용·노동 관련 민원을 빠르게 안내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든 종합 상담 서비스이다. 대표번호인 1350을 비롯해 전국 103개 고용복지+센터의 대표번호를 통해 연결되는 전화 일체를 받고 있다.

“일반적인 콜센터로써의 역할뿐만 아니라 AI챗봇, 카카오톡 기반의 1:1 채팅상담, 1350 모바일상담 등 다양한 상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들어오는 고용노동부 관련 내용을 받아 직접 처리 또는 관련부서 이송 작업 등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센터에서 처리하는 상담업무는 고용노동부와 관련된 제도, 정책, 민원 등으로 나뉜다. 그리고 울산본부를 중심으로 천안, 안양, 광주에 지점을 두고, 세분화된 상담업무를 수행한다. 본부

에서는 근로기준, 임금 및 퇴직금, 산업안전 등과 관련된 분야를, 3개 지점은 공통적으로 실업급여 관련 분야를 담당하되 모성보호, 기업지원제도, 취업 등 전문 분야를 지정해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는 책임운영기관으로 선정되어 있어 본연의 상담업무 외에도 다양한 지원사업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년원 및 보호관찰소 청소년을 대상으로 직업진로지도 및 청소년 노동법 강의 등을 진행하기도 하고 울산고용노동지청, 지자체 등과 협업체 울산지역 산업단지를 방문, 고용과 노동, 산업안전 분야에 대한 특강이나 상담을 실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상담이란 기관의 정책과 제도에 대해 이해도가 높아야만 수행 가능한 직무인 만큼 센터는 축적된 지식과 노하우를 취업 취약계층과 지역사회로 환원하는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합니다**

센터에서 처리되는 각종 상담기록은 고용노동부의 정책자료가 되기도 한다. 직접적으로 대국민 의견 수렴이 이뤄지는 것이라 정책과 제도를 입안하는데 중요한 데이터가 되는 것이다.

“고객의 소리(VOC)는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불편사항을 개선하거나 시스템을 보완하기도 하고, 제도나 정책을 입안하거나 개정하는데 반영되기도 합니다. 저희는 이것을 환류라고 표현하는데요. 센터의 역할 가운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보듬으며, 상담사와 민원인 모두가  
존중받는 따뜻한 연결을 만들어가는 곳.  
1350은 가까이 있습니다!**

최근 행정해석이 변경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중 연차휴가 산정방법’을 예로 들면, 형평성 논란이 있던 기존 제도가 보완된 것인데 이와 같이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센터로 문의전화가가 많이 들어오게 된다. 상담을 통해 센터는 국민들에게 변경된 제도를 법적 용어가 아닌 친근한 일상어로 설명하기 위해 노력하고, 이의제기나 불만사항 등 접수된 민원은 기관으로 전달되어 수렴과정을 거치게 된다.

“모든 의견을 반영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국민 다수가 수용 가능한 범위에서 VOC를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꾸준히 시스템을 가다듬고 고도화하려고 합니다. 민간기업 콜센터 등을 방문해 벤치마킹도 하고, AI 상담 등과 같은 신기술을 도입하려는 노력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센터에서는 상담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채널도 다변화하고 있다. 전화상담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실업급여 관련 내용은 유튜브 채널 ‘1350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https://www.youtube.com/@1350>)’에서 상세 안내하고 있다. 청년지원이나 고용, 취업과 관련된 정보는 인스타그램(@1350moel)을 적극 활용 중이다.

**상담사도 누군가의 가족입니다**

하루에도 수백, 수천통의 전화벨이 울리고, 660명의 센터 상담사들은 분주하게 상담을 이



어간다. 특히 1월~3월이 되면 실업급여 관련 전화가 실 새 없이 들어온다. 이 과정에서 때로는 불쾌한 언어가 오고 가기도 하는데, 개인이 감내하기 어려운 감정노동을 겪는 일도 생긴다.

“욕설, 폭언, 협박, 모욕 등에 대응하는 자체적 대응 매뉴얼을 갖추고 있습니다. 상담사의 중단요청에도 계속되는 경우 통화를 즉각 종료하고, 전화 제한 조치 등을 취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럼에도 이미 상황에 노출되며 받은 상처는 돌이킬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특이 민원을 접한 상담사의 경우 심신 회복 시간을 부여하고, 필요한 경우 근로자지원(EAP) 트라우마센터 등에서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평상시 심리안정을 위해 힐링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등 상

담사들의 정신건강을 지켜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물론 민원인의 입장에서 대기시간이 길어지고, 상담내용이 원하는 방향과 다르게 되면 불쾌한 감정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전화기 너머의 상담사들 역시 업무 밖에서는 누군가의 가족이라는 점을 기억해주시고, 배려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350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는 앞으로도 상담사들의 피해를 줄이고,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을 고민하고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기관과 국민 사이를 이어주는 징검다리로서의 역할에 충실히 해나가며 건강한 조직, 행복한 조직이 될 수 있도록.



# 권리 밖 노동자 목소리, 노동정책의 밑그림이 된다

우리 노동부 타운홀 미팅

일터는 다양해졌지만, 모든 일하는 사람이 동등하게 보호받는 구조는 아직 갖춰지지 못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정책의 방향을 다시 설계하기 위해 현장을 직접 찾아 권리 밖 노동자들과 직접 소통에 나섰다.

구성·사진 고용노동부



10.22. 콘텐츠·미디어종사자 타운홀 미팅



11. 3. IT종사자 타운홀 미팅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는  
권리 밖 노동자들을 직접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법·정책에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 다양한 목소리를 찾아간 릴레이 현장 방문

고용노동부는 변화하는 노동환경 속에서 기존 제도가 담아내지 못하는 현실을 직시하고, 노동정책의 방향을 다시 세우기 위해 권리 밖 노동자들을 직접 찾아가는 소통에 나섰다. 9월 명동에서 열린 권리 밖 노동자 원탁회의를 시작으로, 10월 상암의 콘텐츠·미디어 타운홀, 11월 3일 구로 IT 노동자 간담회까지 이어진 릴레이 현장 방문에서는 플랫폼·프리랜서,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디지털·콘텐츠 산업 종사자 등 다양한 직군의 생생한 경험이 모였다. 이들은 고용불안, 장시간 노동, 보수 지연, 사회보험 접근의 제약 등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지만 제도가 미처 다루지 못한 문제들을 토

로했다. 이러한 현장 방문은 업종과 고용형태를 넘어, “일하지만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이라는 공통된 문제의식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다.

## 서로 다른 일터의 경험 하나의 문제의식으로 모이다

7월부터 10월까지 총 25개 분과, 605명이 참여한 권리 밖 노동 원탁회의가 11월 21일 공식적으로 마무리되며, 다양한 논의는 더욱 구조적이고 체계적인 형태로 정리되었다. 특고·플랫폼·프리랜서,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기간제·용역 노동자 등으로 구성된 참여자들은 서로 다른 일터에서 일하지만, 임금 및 복리후생 문제,





10.22. 콘텐츠·미디어종사자 타운홀 미팅

기초노동질서 미비, 산업안전 및 고용불안 등 핵심 애로사항을 거의 동일하게 지적했다. 한 참여자는 “거리에서든 플랫폼에서든, 혹은 타인의 가정 안에서든 사회를 움직이는 노동은 같지만 법은 그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밝히며, 제도적 보호의 공백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탁회의 결과는 향후 기본법 제정과 예산·재정사업 개선의 출발점으로 활용되며, 권리 밖 노동자의 목소리가 정책의 실질적 근거로 반영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 현장의 목소리가 실제 정책 방향으로 이어진 의미

이러한 현장 중심의 논의는 11월 25일 열린 2025 우리 노동부 타운홀 미팅에서 하나의 큰

흐름으로 결집했다. 제조·IT·웹툰·택배·돌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는 150여 명의 노동자가 참석한 이 자리에서는 릴레이 현장 방문과 원탁회의의 핵심 내용을 공유하고, 장관과 전문가 패널이 함께 노동자들의 문제를 다각도로 검토하는 시간이 마련되었다. 성차별·괴롭힘, 보수 지연·미지급, 사회보험 배제, 불안정한 고용 등 실제 일터에서 마주하는 어려움이 사례 중심으로 제기되었고, 참석자들은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누려야 한다”는 공통된 입장을 밝혔다. 김영훈 장관은 “변화한 시대에는 새로운 문법이 필요하다”며, 기본법을 통해 국가와 사업주의 노동권 보호 책임을 명확히 하고 제도적 보호를 현실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타운홀은 연중 이어

온 소통의 대미이자, 기본법 제정의 방향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자리로 기능했다.

####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기본법의 초석을 쌓다

현장에서 수렴된 다양한 의견은 업종이나 고용 형태에 따라 나뉘던 기존 정책에서 벗어나, ‘일하는 모든 사람’을 중심에 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함을 확고하게 보여주었다. 정부는 릴레이 현장 방문, 원탁회의, 11월 25일 타운홀에서 축적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기본법 제정안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임금·노동질서·산업안전·사회보험 등 반복적으로 지적된 핵심 과제가 제도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예산과 정책을 연계해 추진하고 있다. 이번 일련의 과정은 단순한 의견청취가 아니라, 노동권의 보호 범위를 다시 정의하고 제도적 공백을 메우기 위한 실질적 변화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결국 “노동의 형태는 달라도 기본권은 동일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보다 강력하고 분명한 방향으로 자리 잡고 있다.



11.25. 2025 우리 노동부 타운홀 미팅



11.3. IT종사자 타운홀 미팅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변화한 시대에 맞는  
새로운 문법이 필요합니다.”**



11.25. 2025 우리 노동부 타운홀 미팅



## 다시, 청년의 심장이 뛰다

인천테크노파크 청년일자리센터



한 번 주저앉은 발걸음이 다시 제 속도를 찾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인천테크노파크 청년일자리센터가 청년의 곁에서 해온 일은 바로 그 시간 동안 청년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일이다. 청년들의 지친 마음을 따뜻하게 품으며  
‘스스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단단한 철학으로 청년의 회복과 사회진입을 돕는 이곳은  
2025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최우수 운영기관으로 선정됐다.

글 차은서 사진 오충근

### 지역 혁신 거점에서 청년의 회복 플랫폼으로

1997년에 설립된 인천테크노파크(이하 ITP)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탄생한 지역 혁신 거점이다. ITP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과 성장을 지원하는 7개 사업단을 운영하며, 2016년에는 인천시 관내 경제 관련 3개 기관을 통합해 산업·기술·일자리를 잇는 지원 체계를 세웠다.

그중 일자리사업단에서 운영 중인 청년일자리센터는 인천 청년의 구직활동 지원과 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청년 일자리 활성화에 이바지한다. 하지만 이들이 하는 일은 ‘취업 지원’뿐이 아니다.

“ITP 청년일자리센터는 단순한 교육프로그램을 넘어, 청년이 ‘다시 세상과 연결되는 경험’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을 직접 만들고, 운영하고 있는 박용휘 과장의 말이다.

그의 설명처럼, 청년일자리센터의 프로그램은 정말 다양하다. ‘청년 마음 모임’, ‘청춘 댄스 업’ 외에도 진로 탐색, 심리상담, 예술·체험형 프로그램 등 청년이 스스로 변화의 동기를 찾고 사회와 다시 연결될 수 있는 맞춤형 과정이 운영 중이다.

“주기적으로 참여하면서 또래와 교류하고,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회복하도록 하는 거죠. 무

엇보다 프로그램 종료 후에도 다시 사회와 단절되지 않도록 사후관리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운영한다는 것이 ITP 청년일자리센터의 특징점입니다.”

### 청년의 내일을 여는 촘촘한 연계

ITP 청년일자리센터는 고용노동부가 취업단념 청년의 취업 촉진을 위해 운영하는 청년도전지원사업이 처음 시작된 2021년부터 꾸준히 참여한 기관이다. 2025년에는 전국 86개 운영기관 중 최우수 운영기관으로 선정되며 그간의 노력을 인정받았다.

“청년의 높은 만족도와 취·창업 성과, 그리고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청년들이 편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상담과 체험을 결합한 프로그램이다.

“오전엔 상담, 점심엔 함께 식사하고, 오후엔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거죠. 취업 상담에 대한 거부감은 줄어들고 참여도를 높이는 방법이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청년들이 모이는 공간이 되다 보니 고용노동부센터를 비롯해 민간 취업 지원기관에서 설명회를 할 때도 연계가 훨씬 잘되고 있어요.”



이러한 ITP의 노력이 빛을 발한 걸까. 올해는 목표 인원인 240명 모집에서 700명 이상이 접수해 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취업단념청년들이 다시 한번 도전할 힘과 용기를 얻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습니다. 앞으로 현장의 수요를 꾸준히 발굴해 사회와 청년을 연결하고, 청년들의 회복과 성장의 여정을 함께하는 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센터는 ‘취업률’이 아니라 ‘회복·관계·자기효능감’이라는 과정의 지표를 우선한다. 이는 사회적 경쟁 압박으로 ‘보듬어줄 울타리’가 줄어든 환경에서 저희 같은 기관이 일부 그 역할을 대신해야 한다는 진단에서 출발한다. 완충 장치를 통해 경직된 사회진입 구간을 유연하게 만들고, 이후 후속 연계를 촘촘히 이어 단절을 방지한다.

“청년들이 프로그램 나오는 걸 굉장히 좋아하세요. 피드백을 들어보면 ‘처음 해 본 활동’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만큼 취업을 하지 않은 청년들이 경험하는 것들이 한정적이라는 뜻이겠죠. 저희는 청년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통해 용기와 의지를 갖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세상을 향해, 한 발 더

청년도전지원사업은 5주(단기)·15주(중기)·25주(장기) 과정으로 운영된다. ITP는 각 단계의 ‘심리·동기·리듬’을 세밀하게 읽고 구성한다. 단기·중기는 ‘자신감 회복, 진로 탐색, 기본 취업역량 강화’ 등 즉각 체감할 수 있는 핵심 프로그램을 밀도 있게 제공하고, 종료 후엔 사후관리로 관계의 끈을 이어준다. 장기 과정은 마라톤이다.



박용휘 과장은 “초기 상담에서 구직의욕이 낮거나 사회참여 부담이 큰 청년을 장기로 편성해 단계적으로 지원합니다. 중간엔 ‘쉬어가는 프로그램(취미·문화 체험)’을 넣어 지치지 않도록 하고 있죠.”라고 전한다.

올 상반기에만 밴드·클래식 공연과 함께 보드게임, 클라이밍 체험 등 청년이 직접 선택할 수 있는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했다. 하반기에는 강화도 지역 문화유산 탐방과 청년 교류 활동을 결합한 야외형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며, 이는 모두 참여자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이었다.

박 과장이 한 가지 사례를 떠올린다. “장기 과정 참여 인원 중 세 분이 친해졌는데, 각자 영어, 일본어, 중국어에 특기가 있는 분이었거든요. 자체적으로 ‘외국어 스터디’를 열어보고 싶은데 장소 제공이 가능한지 물어보시더라고요.”

결과는 대성공. 아침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어지는 프로그램이 끝난 뒤 청년들이 자체적으로 스터디를 진행했는데, 정말 많은 인원이 참여해 함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프로그램 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청년의 시선에서 출발하는 교육’입니다. 만족도를 조사하거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이 때문이죠.”

ITP 청년일자리센터는 앞으로 구직의욕이 회복된 청년들이 실제 진로를 구체화할 수 있도록 사업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최근 프로그램을 통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꼭 ‘도전하겠다’라는 거창한 의지를 품고 오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들르세요.” 청년들의 마음을 보듬으며 디딤돌이 되어 주는 ITP 청년일자리센터. 그들의 노력으로 오늘날 한 명의 청년이 세상을 향해 한 발 더 다가선다.



청년도전지원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박용휘(우) 과장과 동료들



신용덕 청년일자리센터장

낮선 공간에서 새로운 경험을 하나씩 쌓아보는 것, 그거면 충분합니다.

저희는 이 사업을 ‘사회화 교육’으로 봅니다. 숨 가쁜 취업 경쟁 속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사회에 부드럽게 적응하도록 완충 지대를 만드는 일이죠. 좁아진 울타리를 기관이 일부 대신 세우는 것, 개개인의 이름을 기억해 주고 일상의 작은 성공을 경험하게 하는 것. 그 따뜻한 배려가 청년의 마음을 열고 나아갈 힘을 갖게 한다고 믿습니다. 선임견이나 과한 책임감은 잠시 내려놓고, 편안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문을 두드려 주세요. 이 공간이 사회의 마중물이 되는, 때론 따뜻하고 때론 시원한 바람이 되길 바랍니다.



# 전문적인 의료 AI로 인류를 더욱 건강하게

의료 AI 개발자

인공지능(이하 AI)이 모든 분야에 걸쳐 빠르게 확산 중인 가운데, 의료 분야에서도 속속 AI가 활용되고 있다. 의료 AI 개발자는 그 중심에 서 있는 미래 유망 직종으로, 의료 빅데이터를 면밀하게 분석할 수 있는 AI를 개발해 '건강한 세상 만들기'에 일조한다.

글 강진우



## 의료 AI 상용화에 앞장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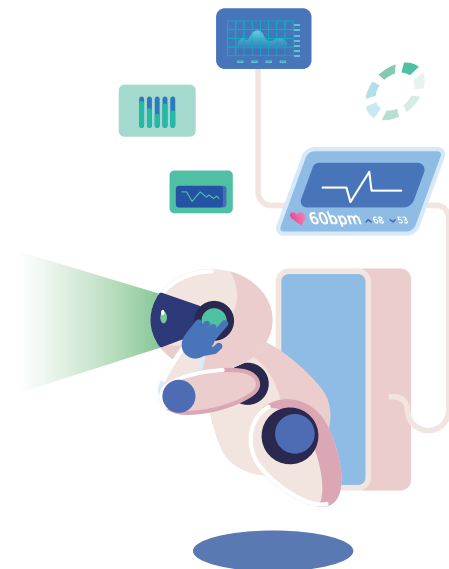
글로벌 경영컨설팅기업 맥킨지는 2024년 미국 의료 산업의 72%가 이미 AI를 도입했거나 AI 관련 과업을 추진 중이며, 17%가 새로운 AI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무려 89%가 의료 AI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 이를 방증하듯 한 보고서는 세계 의료 AI 시장이 향후 10년간 연평균 37%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의료 AI가 영화 속 공상이 아닌 우리의 현실임을 실감케 하는 대목이다.

작년 6월 중국 칭화대학지능산업연구원(AIR)이 구축한 가상 병원 '에이전트 호스피탈(Agent Hospital)'은 의료 AI의 빠른 발전을 대변하는 대표적 사례다. 인간의 개입 없이 AI 의사를 교육하기 위한 이 가상 병원은 실제 환자 의료 데이터를 바탕으로 수십만 명의 AI 환자를 생성했으며, AI 의사는 현실보다 100배 빠른 시간 속에서 이들을 진료하며 의학적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있다.

의료 AI 개발자는 이 같은 의료 AI를 개발하는 직업으로, 미래 유망 직종 중 하나로 손꼽힌다. 이들은 병원과 의학 연구기관에서 수집된 의료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분류하고, 이를 학습해 특정 의료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는 AI 프로그램을 개발 및 상용화하는 데 앞장선다. 현재는 진단 보조, 질병 예측, 의약품 개발 등이 이들의 주요 무대이며, AI 성장 속도에 따라 점점 더 범위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 높은 개발력과 엄격한 도덕성이 '생명'

의료 AI 개발자는 단순히 특정 데이터를 다루거나 AI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수준을 넘어, AI 기술과 의료 현장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수행한다.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좌우할 수 있는 분야의 AI를 개발하는 만큼, 의료 AI 개발자는 한 치 오차 없는 데이터 분류 및 분석력, 엄격한 도덕성, 신뢰도 높은 전문성 등을 두루 갖춰야 한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개발하는 AI와 관련된 의료 지식도 어느 정도 갖추고 있어야 비로소 의료 현장에서 실효성 높은 AI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



직업명에 '의료'가 들어가지만, 결국 의료 AI 개발자의 핵심 능력은 데이터 수집·처리·분석 능력, 딥러닝 기반의 AI 프로그램 모델링, AI 성능 최적화 등 AI 개발 능력이다. 앞서 언급했듯 의료 AI 개발자의 핵심 덕목이 '완결성 높은 개발 능력'인 만큼, 각 능력 하나하나를 완벽에 가깝게 꿰뚫고 있어야 이 업계에서 수월하게 성장할 수 있다. 아울러 의료 전문가와 긴밀하게 협업해야 하므로 기초적인 의학 지식과 원활한 소통 능력도 필요하다.

의료 AI 개발자는 병원, 제약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헬스케어 기업에도 취업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의료 빅데이터센터, 의료 IT 솔루션 기업 등도 의료 AI 개발자의 주요 활동 영역이다. 의료계가 의학적 데이터를 더욱 유용하게 활용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 AI가 존재하는 만큼, 의료 AI 개발자의 수요는 앞으로도 꾸준히 우상향할 것으로 보인다.



# 열아홉의 너, 아주 멋지게 해내고 있구나

영화 <3학년 2학기> 속 청소년들에게

위험을 피하지 못해 떨리는 마음보다, 네가 오늘 해낸 일을  
먼저 떠올리길 바란다. 영화 <3학년 2학기>가 보여준 청년 노동의  
일상 위로처럼, 너의 하루에도 응원의 말 한 줄이 닿기를.

글 편집실 이미지 출처 영화 <3학년 2학기> 공식 포스터



## “일하는 너를, 있는 그대로 응원한다.”

영화 <3학년 2학기>는 특성화고 학생들의  
마지막 학기를 다룬다. 익숙한 교실을 떠나 낮  
선 중소기업 공장에서 생활하게 된 열아홉 창  
우와 그의 동료들. 처음엔 서툴지만 했던 아이  
들이 사수의 차가운 말에도 조금씩 일의 기쁨,  
동료애를 느끼며 사회로 한 발자국씩 나아가  
는 모습이 그려진다. 낮선 현장에서 보내는 시  
간, 기계음이 끝없이 울리는 공장 풍경, 금속  
냄새가 났 작업복, 어색하지만 일터에 적응하  
려 애쓰는 아이들의 모습은 누구에게나 익숙  
한 현실의 단면이기도 하다.

김영훈 장관은 지난 9월 특성화고 학생들과  
영화를 관람한 후 “청년들의 고민과 목소리를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  
다.”며 “취업을 앞둔 막막함과 청년 노동자의  
아픔이 잘 드러났고, 가해자 또한 또 다른 피  
해자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일터 문화를 더 세  
심하게 살펴야 한다.”라고 의미를 함께 했다.

## 청년 노동의 현실과, 그 가운데 지키고 싶은 것들

청년 노동의 풍경은 각기 다르지만, 그 속의  
본질은 크게 다르지 않다. 특성화고 실습생이  
든, 첫 직장을 시작한 신입이든, 공장이나 사  
무실, 연구소나 매장에서 겪는 당혹스러움과  
어려움은 비슷하게 다가온다. 누구나 처음엔  
모든 게 서툴고, 새로운 사람들과 부딪힘도  
낯설지만, 그 과정을 거치며 성장한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다른 기준의 노동법이  
적용되는 건 아니다. 더 많이 일해야 하거나 쉽  
게 대우받아도 괜찮다는 논리도 맞지 않는다.  
청년 역시 당연히 보호받고, 지켜져야 할 노동  
자다. 법도 이 사실을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다.

첫째, 산업안전보건법은 신입과 청년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사업  
주는 실습생이나 청년에게도 반드시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안전장  
비 제공과 위험기계 방호도 당연히 챙겨야 한다. 만약 안전조치도 없이  
위험한 업무를 맡기는 건 명백한 법 위반이다.

둘째,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은 개인의 의지가 아닌, 법으로 정해진 영역이  
다. 주 52시간 근무체계 안에서 연장, 야간, 휴일근무는 모두 사전 동의와  
추가수당 지급이 기본이다. 사회 생활을 시작할수록 출퇴근 기록, 휴게시  
간 체크 등 작은 습관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첫걸음이 된다.

셋째, 직장 내 괴롭힘은 분명한 법적 문제다. 모욕이나 따돌림, 지나친 업  
무지시 등은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니라 법으로 금지된 행동이다. 고용노  
동부의 익명 신고창구나 회사 내 절차를 활용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청년 노동 이야기는 종종 과장되거나 비극적으로만 그려지기도 한다. 하  
지만 진짜 필요한 건 ‘정확한 권리’를 아는 일이다.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고 지킬 때, 막연한 불안도 조금은 사라진다. 그게 곧 더 현실적인 보호  
의 시작이 된다.

## 일하며 자라는 청년들

영화 속 청년들이 위험한 현실 속에서도 서로를 의지하며 버텨낸 것처럼,  
청년의 노동도 늘 불안과 성장 사이 어딘가쯤에 있다. 처음 걷는 길 앞  
에서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라는 물음이 따라올 때가 많지만, 누구나 일상  
을 꾸준히 살아내며 자신만의 리듬을 만들어간다.(고용노동부 고객상담  
센터 ☎ 국번없이 1350)

직장 선배의 짧은 조언, 동료의 따뜻한 손길, 혹은 스스로 느끼는 작은 성  
취감. 이런 것들이 서툰 하루를 지탱해 준다. 그렇게 어느덧 ‘일하는 사람’  
으로서 조금씩 자신만의 자리를 만들어간다. 누구나 일터에서 각자의 방  
식으로 버티며 자란다. 그 과정 자체가 가치 있다.



## 이런 건 알아두자!

### ① 고용복지플러스센터(고용24)

취업 준비부터 직업훈  
련 및 일자리 정보제  
공, 상담 서비스까지  
통합지원. 오프라인·온  
라인 모두 이용 가능



### ② 근로시간 포털

연장·야간수당 계산,  
휴게시간 규정, 근로시  
간 기준을 쉽게 정리해  
제공한다. 초년생에게  
필수



### ③ 산재예방 교육시스템

안전조치 미비한 중소  
사업장과 실습기관을  
대상으로 점검·교육  
지원



### ④ 직장 내 성희롱 익명신고 시스템

신원이 보호된 상태로  
신고 가능, 전문 상담과  
처리 절차 안내 제공





## 01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령('26.3.10.)에 맞춰 원·하청 간 실질적 교섭을 촉진하기 위한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월 25일부터 1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원청이 근로조건에 실질적 영향력을 미치는 경우 교섭의무를 지도록 하고,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안에서 하청노조의 교섭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섭단위 분리 기준을 신설했다. 노동위원회는 노조 간 이해관계·근로조건 차이 등을 고려해 개별 또는 유사 하청별로 교섭단위를 나눌 수 있으며, 원청이 교섭에 불응할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대응한다. 정부는 사용자성 판단 지원위원회 운영과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령('26.3.10.)에 맞춰 원·하청 간 실질적 교섭을 촉진하기 위한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월 25일부터 1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원청이 근로조건에 실질적 영

## 02 외국인고용 취약사업장 근로감독 결과 발표



경영 악화를 이유로 총 17억 원 규모의 임금을 체불하는 등 기본 노동권 침해가 광범위하게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시정지시로 체불액 중 12.7억 원을 청산하고, 폭행과 고의적 체불 사업장 2곳은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아울러 보험 미가입, 기숙사 기준 미달 등 외국인고용법 위반도 적발해 시정 및 고용허가 제한을 조치했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고용취약사업장 196곳을 집중 감독한 결과, 182곳에서 폭행·차별·임금체불·장시간 노동 등 846건의 법 위반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상여금·연차를 미지급하거나,

## 03 2025 KB굿잡 대전 일자리 페스티벌 개최



전 D-유니콘기업 등 200여 개 기업이 참여해 청년 인재 채용에 나섰다. 현장에는 커리어 컨설팅, 모의면접, VR 직업체험 등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됐으며, 고용노동부는 체험형 홍보공간 '잡스토리24'를 통해 맞춤형 취업지원 제도를 안내했다. 김영훈 장관은 중앙·지방·민간 협력을 강조하며 청년에게 더 많은 일자리 기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KB국민은행·대전시가 공동 주최하는 '2025 KB굿잡 대전 일자리 페스티벌'이 11월 19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올해 마지막 지역 특화 채용박람회로, 청년일자리 강소기업과 대

## 04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 간담회 개최



택적 근로시간제 도입 과정과 구성원 공감대를 통한 제도 정착 사례를 확인했다. 트리즈엔은 격주 4일제를 시범 운영하고, 근무체계를 개편해 노동시간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한 사례를 공유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노사·전문가가 제도운영의 어려움과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고용노동부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실노동시간 단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은 11월 19일 제5차 회의와 현장 간담회를 열어 기업의 유연근무 도입 및 노동시간 단축 경험을 직접 청취했다. 추진단은 일터혁신 사례 공유 포럼에 참여해 동인광학의 선



## 05 포항·서산,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신규 지정



이번 지정으로 두 지역의 재직자·실업자·자영업자는 국민내일배움카드 한도와 수  
강료 지원,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한도가 상향되고, 실업자는 소득과 무관하게 국  
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지역 사업주는 고용유지지원금과 직업능  
력개발 지원에서 우대 혜택을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제4차 고용  
정책심의회에서 포항시와  
서산시를 고용위기 선제대  
응지역으로 신규 지정했  
다. 철강과 석유화학 등 지  
역 주력 산업의 부진이 이  
어지며 고용둔화가 나타난  
점이 주요 지정 배경이다.

## 06 ‘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 본격 추진



등을 통해 선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건설·환경미화·배달종사자 등 취약업종에는  
작업시간 조정, 옥외작업 최소화, 휴게시설·난방기기 지원, 핫팩·귀덮개 제공 등 보  
호조치를 강화한다. 외국인 노동자에게는 18개 언어로 예방수칙을 배포하며, 농축  
산업 등 고용사업장 합동점검도 실시한다. 정부는 사전점검과 불시 점검을 병행해  
한랭질환 예방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올겨울 한파  
로 인한 노동자 건강 피해  
를 막기 위해 ‘한파 대비 노  
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마  
련하고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추진한다. 비  
상대응반 운영과 한파 취  
약사업장 3만 곳 집중관리

## 07 전국 48개 관서장 주말 불시점검



상으로 ‘집중점검주간’을 운영하며 지방관서와 안보공단 등 모든 자원을 투입해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평일·주말·야간을 막론한 상시 안전관  
리를 강조하며, 노동안전 종합대책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산업재해의 구조적  
위험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 예  
방을 위해 전국 48개 지방  
관서장이 주말 불시점검  
을 실시하며 도·소매업, 건  
물종합관리업 등 생활밀접  
업종의 안전위험요인을 집  
중 점검했다. 정부는 연말  
까지 특정위험 분야를 대

## 08 고용보험 제도개선 TF 출범



면적 개편이 필요한 상황이다. TF는 황덕순 전 한국노동연구원장을 위원장으로 노  
동계·경영계·전문가·정부 등 10명으로 구성되며, 적용 확대·소득기반 전환·실업급  
여 개선·재정건전성 강화 등 핵심 과제를 순차적으로 논의한다. 첫 회의에서는 ‘소  
득기반 고용보험’ 개편 방안이 다뤄졌으며, 정부는 노사 협력으로 고용보험의 미  
래를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11월 12일  
‘고용보험 제도개선 TF’를  
출범시키고 미래 고용보험  
개편 논의를 시작했다. 고  
용보험은 지난 30년간 경  
제위기 대응과 제도 성장  
을 이뤘으나 디지털화·저  
출생·고령화 등 변화로 전





합천영성테마파크

## 오색 찬란한 가을처럼

### 합천

그 계절에만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누린다는 것은 참 즐거운 일이다. 하지만 오묘해진 날씨로 가뭄이나 짧은 가을을 누리지 못했다면, 합천으로 가보자. 합천은 지금, 오색 찬란한 가을옷을 입고 여행자들을 기다린다.

글 김민영 사진 정우철

## 자연 명소 가득한 경남 합천

경상남도 합천에는 우리나라 3대 사찰로 손꼽히는 해인사가 있다. 해인사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록된 팔만대장경판과 장경판전을 보유하고 있는 곳이라 더 유명해진 곳이기도 하다. 그래서인지 대부분은 합천 하면 가장 먼저 해인사를 떠올리곤 한다. 하지만 합천은 해인사 이외에도 볼거리와 즐길 거리 무궁무진한 곳이다. 가을이면 역사가 장관을 이룬다는 황매산군립공원에서, 오도산 자연휴양

림, 옥전고분군, 합천호 등 자연 명소가 많다. 계절의 특성에 따라 그 모습을 달리하고 여행자들을 반기기 때문에 사계절 언제 찾더라도 찾는 재미가 있다. 꾸밈없이 자연 본연의 모습 그대로 황홀함을 자아내서인지 힐링하고 간다는 후기가 많은 동네이기도 하다. 게다가 번잡함 없이 조용하게 사색에 잠기기도 더할 나위 없이 좋다. 그러한 해의 끝자락을 조금 차분하게 마무리하고 싶다면, 합천을 추천한다.



합천호



해인사





## 가을이 제일 멋진 신소양체육공원

많고 많은 합천의 여행지 중에 어느 곳으로 가야 할지 선택하기 어렵다면, 신소양체육공원은 어떨까. 신소양체육공원은 늦가을에 가장 아름답게 물드는 곳이기 때문이다.

원래는 ‘소양체육공원’이라는 이름으로 지역 주민들의 편의와 건강 증진, 생활 체육을 위해 마련된 곳이었으나, 새롭게 단장을 마쳐서 ‘신소양’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한다. 야구장, 잔디광장, 산책로 등 체육시설 등을 갖추고 있을

만큼 규모가 큰 이곳은 매년 가을이면 그 매력이 극에 달한다. 분홍색 억새꽃 핑크물리와 단풍, 코스모스, 국화 등 가을에만 볼 수 있는 풍경들로 꽉 들어차기 때문이다. 넓은 공원에 핑크물리와 가을꽃이 가득한 모습이 아름답기로 소문이 나서 가을이면 꼭 찾아봐야 하는 합천의 명소가 되었다고 한다. 실제로 가보면 가을 정취를 제대로 느낄 수 있다. 어느 곳을 둘러봐도 붉게 물든 단풍나무들 사이로 피어난 핑크물리가

눈에 가득 담기는데, 그림 같다는 표현이 아깝지가 않을 만큼 장관이다. 특히 국내 최대 규모로 더 유명해졌다. 천천히 산책로를 따라 걷다 보면 가을의 한복판에 들어와 있는 느낌이 든다. 여기서는 사실 이렇게 천천히 걷다가, 마음에 드는 풍경에 멈춰서 사진을 찍어도 좋고, 벤치에 앉아 멍하니 풍경을 눈에 담아도 좋다. 특별히 무얼 하지 않아도 그 자체만으로도 가을의 조각을 양껏 담아갈 수 있으니 말이다.

## 합천영상테마파크에서 시간 여행

신소양체육공원에서 가을의 정취를 마음껏 느꼈다면, 이제는 합천영상테마파크에서 시간 여행에 나서보자. 합천영상테마파크는 1920년대부터 1980년대를 배경으로 하는 시대물 오픈 세트장이다. <폭삭 속았수다>, <정년야>, <미스터 선사인> 등 우리나라 대부분의 시대극 드라마와 영화의 배경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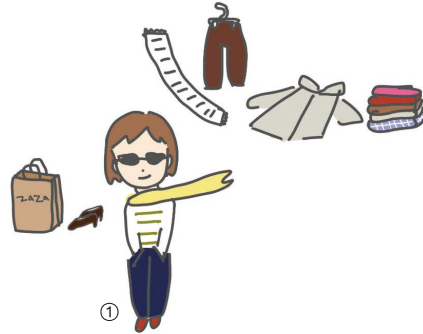
표를 끊고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그 옛날 사용되던 우체통부터, 집을 가득 실은 수레, 일제강점기 시절의 건물, 이 어우러진 풍경들이 뒤섞이는데, 마치 드라마와 영화 속의 주인공이 된 기분이 든다. 길을 걷다가 지금은 찾기도 힘든 구두, 가방 등을 모아 놓은 좌판을 구경하는 재미도 쏠쏠하다. 요즘 유행하는 레트로 콘셉트로 꾸며놓은 듯한 다방도 보인다. 이곳은 관광객들이 꼭 들르는 포토존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사실 여기서는 모든 곳이 포토존이다. 적산가옥, 대흥극장 등 시대를 담은 건물들 앞에서 사진을 찍다 보면 시간이 더디게 간다. 최근에는 영상테마파크 뒤편에 분재공원과 정원테마파크가 문을 열어 사람들의 발길이 더 많아졌다고 한다. 그러니 이곳을 찾는다면 시간을 여유롭게 두고 찾을 것을 추천한다. 어느 한 곳 하나 지나치기 아쉬울 만큼 볼거리, 체험거리가 가득하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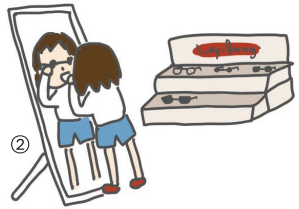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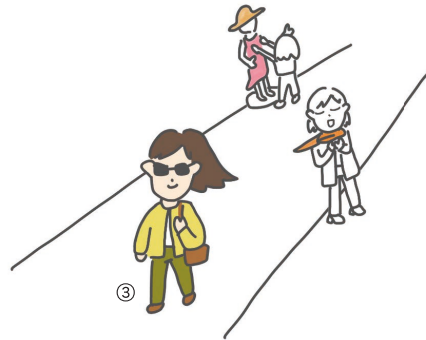
## 실패가 쌓이면 취향이 된다



주변에 센스 있게 옷을 입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패션에 관심이 많은 것은 기본이고  
수십 번 쇼핑에 실패했을 확률이 높다.



실패를 반복하는 과정을 지나고 지나  
현재의 패션 감각을 체득했을 것이다.



그렇게 애정과 관심이 쌓여  
한 사람의 취향이 만들어진다.



도개비방망이처럼  
원하는 걸 딱딱! 한방에 얻길 기대하기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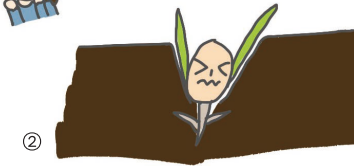


내 취향이 무언지 차근차근 알아보는  
애정이 담긴 여정을 시작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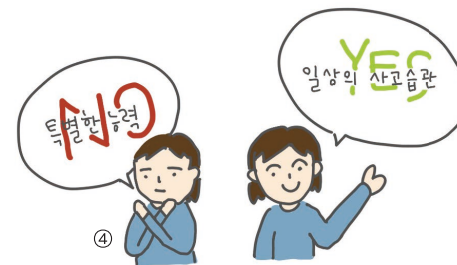
## 창의력 본능을 따르는건 어때?



화이팅!!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세상 밖으로!!



변화를 원하는 마음속의 씨앗이  
익숙함을 깨는 아이디어로 힘차게 발화하는 것 같았달까.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문제 해결 능력에 더 가깝다고 생각한다.



'세상을 바꾸는 건 어떤 대단한 게 아니라  
이대로는 못 살겠다는 현실적 감각'이라는 말에  
깊이 공감한 적이 있다.



창의력이라 하면 예술가나 개발자같은  
특별한 직업의 필수적인 역량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평소에 불편한 것이 있었다면 틀에 얽매이지 말고  
내 본능적인 감각을 활용해 해결 방법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



## 온전히 누리는 사계절의 매력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사계절의 색깔이 점차 열어지면서,  
그 중요성을 실감한 사람들이 제철 챙기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제철을 온전히 즐기려고 노력하는 '제철코어' 트렌드가 자리 잡은 것이다.

글 강진우

### 일상 전반에 스며든 '제철 챙기기'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제철 챙기기는 기성 세대의 낡은 라이프스타일로 여겨졌다. 그런데 최근 기후변화의 심화로 계절 간 경계가 희미해지고 제철에 즐길 수 있는 먹거리와 여가 생활이 희소해지면서 제철을 챙기는 일이 '아무나 경험할 수 없는 귀한 즐거움'으로 탈바꿈하고 있으며, 이는 참신한 경험을 중시하는 MZ세대의 감성을 자극했다. 제철 챙기기에 진심을 다하는 이른바 '제철코어(제철과 핵심(Core)의 합성어)'가 급부상한 배경이다.

국내의 한 시장조사 전문기업이 지난 10월 전국 만 13~69세 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제철코어 소비 트렌드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74%가 '계절별로 특색 있는 음식을 먹거나, 활동하는 것을 즐기는 편'이라고 답했다. 제철코어가 기성세대를 넘어 전 연령대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는 지점이다.

'제철 챙기기' 하면 먹거리를 먼저 떠올리지만, 사실 제철코어는 우리 생활 전반을 넉넉하게 품는다. 예를 들어 봄맞이 꽃구경과 가을철 단풍놀이는 점점 짧아져만 가는 봄과 가을을 물씬 느끼기에 가장 좋은 활동인데, 앞서 언급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63.8%가 꽃구경에 나선다고 답했으며 단풍놀이를 즐긴다고 말한 응답자도 61.5%에 달했다.

제철 식재료와 음식 정보를 담은 제철 음식 달력이 품절 대란을 일으키는가 하면, 각 계절에 잘 어울리는 음악을 그려모은 '계절 플레이리스트'는 철마다 검색 순위 상위권을 차지한다. 전국 각지에서 열리는 제철 축제는 기성세대의 전유물이었지만, 이제는 행사장에서 각 지역의 제철 음식과 문화를 즐기는 20~30대를 흔히

발견할 수 있다. '농장을 운영하는 지인이 있어서 제철 과일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제철과일수저'가 금수저보다 부럽다'는 한 SNS 사용자의 게시글이 MZ세대 사이에서 큰 화제를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이처럼 다양한 제철 챙기기가 성행하고 있지만, 그중 가장 각광 받는 활동은 단연 제철 음식이다. 이러한 선호는 MZ세대가 오감을 만족시키는 음식, 즉 '섹시푸드(Sexy Food)'에 열광하는 풍조와 맞물리면서 갈수록 강해지고 있다. 이쯤 되니 궁금해진다. 12월에는 어떤 '제철 섹시푸드'가 우리의 오감을 사로잡을까.

### 12월에 꼭 먹어야 하는 '제철 섹시푸드'

#### 방어회

방어에 살이 많이 붙고 지방이 풍부해지는 12월이다. 고르게 퍼진 기름기로 인해 고소하고 깊은 감칠맛을 자랑하면서도 느끼하지 않고 쫄깃한 식감을 자랑하기에, 회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12월의 방어회'를 꼭 찾아 먹는다.

#### 곶감말이

곶감에도 철이 있는데, 12월에 나오는 이른바 '햇곶감'을 최고로 친다. 이 햇곶감을 반으로 갈라 호두, 아몬드 등을 넣은 뒤 돌돌 말면 달콤함과 고소함을 모두 갖춘 제철 겨울 간식이 완성된다. 따뜻한 차와 함께 곁들이면 더욱 짙은 겨울 정취를 느낄 수 있다.

#### 김장철 돼지고기 수육

갓 담은 김장에 돌돌 싸서 먹으면 가장 맛있는 돼지고기 수육을 즐길 수 있다. 김장의 식이섬유, 수육의 단백질과 지방이 고루 어우러져 있어 영양학적으로도 훌륭하다.



# 흔들려도 괜찮아! 다시 일어서면 그뿐

## 멘탈 회복력

‘멘붕’이라는 말이 일상어가 된 시대, 우리는 생각보다 자주 흔들린다. 하지만 중요한 건 무너지는 순간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는 방식이며, 그 회복에는 누구에게나 고유한 리듬이 있다.

글 편집실 자료 <유리 멘탈이지만 절대 깨지지 않아> 외



## 흔들린다는 건, 살아 있다는 증거

멘탈은 거창한 사건이 아니어도 쉽게 금이 갈 수 있다. 누군가의 무심한 말 한마디, 갑작스러운 일정 변화, 혹은 특별한 이유 없이도 하루가 망가질 때가 있다. 그러나 흔들린다고 해서 바로 무너지는 것은 아니다. 어떤 사람은 공원을 천천히 걸으며 마음을 가다듬고, 또 어떤 사람은 이불 속에 조용히 숨어 시간을 보내기도 한다. “나는 왜 이것도 못 견디지?” 하는 자책보다 지금 나를 지킬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선택이 더 중요하다. 회복은 의지의 문제라기보다는, 스스로에게 시간을 허락하는 법을 익혀가는 과정이다.

## 회복에는 정답이 없다, 속도만 있을 뿐

누군가는 잠시 쉬는 것만으로도 금방 평정을 되찾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며칠이 지나도 마음이 쉽게 가라앉지 않는다. 걸으려는 아무렇지 않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애쓰고 있을지도 모른다. 반대로 ‘유리멘탈’이라고 불리는 이들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감정을 정리해가고 있을 수 있다. 회복력은 강함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자신만의 리듬을 찾는 일이다. 빠르다고 좋은 것도, 느리다고 나쁜 것도 아니다. 나만의 속도를 받아들이는 순간, 자신을 몰아붙였던 마음도 조금씩 풀린다.

## 다시 서는 방식은 저마다 다르다

어떤 이는 한 번에 훌훌 털고 일어서고, 또 다른 이는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며 자신의 리듬을 찾아간다. 그 모든 과정이 ‘잘 회복하고 있는 중’이다. 멘탈이 흔들린다는 건 약하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 내가 살아 있다는 신호다. 다시 일어난다는 건 강해서가 아니라,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기로 선택한 결과다. 그 선택의 방법과 속도는 누구도 대신 정해줄 수 없다. 결국 회복의 리듬은, 오롯이 나만의 것이다.

### MBTI별 멘탈 회복력 순위





## 「월간 내일」과 함께 하는 QUIZ



「월간 내일」 2025년 12월호를 읽고 모의고사에 응시해 보세요!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선택형 제출범위. MOEL 아카이브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당 얼마일까요?

- ① 10,030원    ② 10,120원    ③ 10,320원    ④ 10,420원

hint.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290원(2.9%) 인상됐습니다.

| 월급명세서                                                        |            |
|--------------------------------------------------------------|------------|
| 기본급                                                          | 1,620,000원 |
| 직무수당                                                         | 150,000원   |
| 교통비                                                          | 100,000원   |
| 식대                                                           | 100,000원   |
| 시간외수당                                                        | 300,000원   |
| 상여금                                                          | 135,000원   |
| 계                                                            | 2,405,000원 |
| ※ 상여금은 기본급의 약 100% (1,620,000원월 12개월과<br>내역서 매월 135,000원 지급) |            |

### 선택형 제출범위. MOEL 아카이브

2026년 1월 다음과 같은 월급명세서를 받았다면?

- ①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②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닙니다.

hint. 시간외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소정근로 외의 임금으로서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참여방법 I 이벤트는 QR코드를 통해 응모하실 수 있습니다.

**Step 1**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캔

**Step 2** 이벤트 응모 입력 후 제출



※ 참여기간

2025년 12월 15일(월)까지

※ 당첨자에겐

별도로 연락드립니다.

11월호 당첨자 축하드립니다!

|           |           |           |           |
|-----------|-----------|-----------|-----------|
| 홍○택(1436) | 전○홍(4618) | 김○정(7334) | 김○연(5821) |
| 김○민(3853) | 이○숙(0140) | 이○인(5939) | 김○진(9547) |
| 이○재(6883) | 김○오(1655) | 김○홍(5821) | 윤○희(5455) |

## 「월간 내일」 구독 및 구독 해지 방법



- ① 「월간 내일」 웹진에 접속합니다.
- ② [QUICK MENU]를 클릭하고, '구독신청 및 해지'를 클릭합니다. 또는 홈페이지 제일 아래의 '구독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③ 구독하시려면 '신청하기' 버튼을, 구독을 해지하시려면 '해지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구독 및 해지를 위해 정보입력 및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 고용노동부는 가까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제도·정책 소식이 궁금할 때,  
고용노동부와 소통하고 싶을 땐 QR을 스캔하세요!

웹진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



트위터

